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우리 주님은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을 지키면서 5월은 지나가는 것 같다. 교회 제도, 국가 제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이다.

그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 그것이 우리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다.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사람 되라 성공하라 하시는 부모님의 소원은 한결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우리 주님께에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

젓도 내지 못하고 먹기만 하는 송아지 같다고 무시하기 쉬우나 이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이들이 부모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가족예배와 청년예배가 있다. 청소년을 소중히 여기시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후손의 영적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겠다.

오늘 장로선거한다 -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그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지난 5월6일(주) 제직회를 통해 선출한 20명의 장로후보 중 10명을 제7대 장로로 선출할 공동의회를 오늘 찬양예배 후에 개최한다.

①우리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은 전원이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투표권을

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②10명의 후보를 사전에 준비하여(메모 등) 투표 시 기표할 것이며, ③필기 도구(볼펜, 만년필)를 준비하여 기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④무엇보다도 전 교인이 모두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보를 선출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체험해야 할 것이다.

청년예배 시 찬양을 함께 - 오후 1시30분부터-

우리교회는 주일 III부 예배를 청년예배로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오후 1시30분부터 펠그림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인도도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된다. 율동과 악기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매주 토요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타를 칠 수 있는 분 또는 치기를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청년예배 시 안내위원은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맡는다.

젊은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 후에는 대-청부로 나누어 성경공부와 교제를 통해 젊은이들의 시간을 갖는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및 여름행사 준비한다

올 여름은 무척 덥다는 예보가 나왔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학교 학생들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에 바빠진다. 7월과 8월중에 있을 여름성경학교 행사는 물론 농촌 전도단, 단기선교팀 해외파송 등 교회는 각 부서별로 벌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새가족 환영회 - 찬양예배시

5월 새가족환영회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있다.

5월 새신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경숙 권오중 김동일 김우중 김은성 김은진 김은희 김재영 김중식 김해중 김하덕 나범철,남은희 노현자 박수진 박영미 박은자 박춘자 박태진 박형주 박혜숙 반영진 배충환 손명애송부자 심규환 오세원 우경자 원정순 음해경 이미정 이미정 이장식 이지연 임경락 임기선장외남 전석순 전한로 정인호 최원민 한금수 한상욱 한상혁 한용희 홍유식 이상 46명과 오늘 등록하신 분

향작극 작품모집

우리교회는 오는 10월 19일에 개최되는 기독교 창작극 경연대회에 참가할 새로운 창작극 원고를 모집한다. 내용은 순수창작극으로 기독교의 정신을 담고있는 것으로 30분 정도의 분량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원고마감은 6월30일까지이다.

김치세미나 자원봉사자 모집

우리교회가 전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9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올해도 6월6일부터 15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기획, 진행, 홍보, 의전, 시설, 봉사 분과에서 봉사하실 소명을 가지고 계신 여러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전세계의 복음화에 일조하도록 한다.

one & one 가족축제

유년부에서는 유년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6월2일(토) 오후 3:00부터 한 하나님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one & one 가족축제'를 연다. 서울교회의 유년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날을 기억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한 하나님 아래서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맛보도록 하여야겠으며 주변의 친구도 초청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함께 구원 받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이번주 이모저모



① 탈북난민을 위한 시민 걷기 대회-예배



② 탈북난민을 위한 시민 걷기 대회-만나홀에서의 즐거운 한때

③탈북난민을 위한 시민 걷기대회 -양재천을 걸으며

이사야서 강해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 45:9 - 13)



이중운 목사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신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항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1.하나님의 주권에 항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1)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다룰 수 없다

창조주와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헛되고 무지한 일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9절).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손이 없다'(기술이 없다)고 무시하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적당하게 쓰임 받도록 지으셨습니다.

(2)자식이 부모의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10절). 만일에 이런 불평을 하는 자

식이 있다면 그는 부모에게 패역하는 자이며 악한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을 가지시고 마치 토기장이처럼 진흙으로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 만드시며 일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다투는 것은 반역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본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버리시든 택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다만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민주주의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적일 수는 있으나 결코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행정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항의문 95개 조항을 말할 때에 교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 교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잘못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진리이며 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항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십니다. 여호와와는 장래 일을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11절). 왜냐하면 자기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항변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11절), 그는 우주의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자기 계획대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13절) 하나님은 이사야 45:1-5에서 지명한 고레스를 일으켜 의로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보상 없이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을 상으로 주셨고 후에는 고레스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타버릴 부지깅이도 필요에 의해서 잠시 사용하십니다.

3.하나님께 순종하라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불순종의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대항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고 있고 크게 실망하거나 절망을 느낄 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유일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중요한 재화가 손실 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때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익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다투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12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는 분이시며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13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변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지 왔어요, 목사님 보옵소서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던 산과 들도 이제는 푸른 잎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씨 나락을 소독하여 물에 담그고 못 판에 넣은 법씨들이 파랗게 싹이 난 다음, 못자리 판으로 시집을 가서 파릇파릇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한 소식을 접한 다음부터 달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초등학생이 수학여행을 갈 때처럼 손꼽아 기다렸던 서울 나들이였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으로는 어디 갈 곳도 끼일 곳도 마땅치 않은 위치라서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말이지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놓여준 목회자들을 초청 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특강도 매우 좋았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믿음들이 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어디서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니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이번에 많은 재정과 수고가 든 줄 압니다.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서울교회의 정성과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은 더욱 주님 앞에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합니다. 점심식사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밥도 잘되고요. 처음 대하는 음식도 있어 호기심으로 맛을 보았는데 정말 그만이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허끝에 느끼는 음식을 씹으며 나의 삶도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맛있는 목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가 반주기는 하나 사려고 마음먹고 있던 저에게 더 없는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여호와 아래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선교부에서 수고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원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 저희 놓여준 교회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롬!!

2001년 4월29일 주일오후
경북 김천 황향교회 한덕순 전도사 드림

탈북난민을 돕기 위한 생생한 현장 어린 자녀들도 피켓을 고사리 손에 들고 대치동 한티공원으로 모였다.

19일 오후 우리 서울교회의 탈북난민돕기 시민견기대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탈북자, 일반시민등 600여명이 동참,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탈북난민들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들에 대한 난민청원을 국내외 여론에 호소하는 한마당이였다.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오후 2시 30분 출발에 앞서 "이 시대에도 마케도나 사람의 피눈물 나는 절규가 있으니 이국 땅에서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10만여 탈북 동포들의 호소가 그것이며 정치권을 비롯 온 국민들이 탈북 난민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민족적인 사명으로 인식하도록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탈북동포를 위한 프레벨론 띄우기를 마치고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출발선호에 따라 참가자들은 줄을 지어 출발 "탈북난민, 바로 내 형제 다같이 도웁시다" "잃어버린 북한 동포 복음으로 다시 찾자"고 격된 피켓을 들고 양재천을 따라 한티공원으로 돌아오는 소망코스(왕복2KM)와 믿음코스(왕복5KM)를 걸었다.

2시간여에 걸친 걷기 대회가 끝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모처럼 공동체의식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 행사였다"고 밝게 웃었다.

나이 어린 유치부와 유년부의 학생들도 믿음코스(왕복5KM)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선두에서 행진을 계속해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일흔과 여든을 넘기신 노년사님들의 모습은 물론 인공심장에 의지하고 계신 심체를 권사님의 모습도 보여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어 8층 만나홀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함께 식사하며 교체하고 경품행사를 가졌으며TV와 전자레인지 등이 당첨된 성도들이 주저 없이 이날 참석한 탈북자들에게 즉석에서 상품을 양보하여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였다.

김시환(편집부)

십자가 위 사랑의 꽃 문형미 집사(4교구)

초록 물결
수채화처럼 번지고
향기로운 꽃들
지천에 흐드러진 오늘

저들도
제 모습 드러내기에
겨우내
양상한 가지 위
눈꽃 피운 아픔 견뎠으리

주님 말씀하시네
살아 있으나
죽은 자처럼
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러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나는 육신
깨어져야 하리
부숴져야 하리
산산이 부숴져
다시는 맞출 수 없는
육이 되어 하리

오 주여!
깨어진 줄 알았나이다
부숴진 줄 알았나이다

내 영에
생기를 부으소서
찢긴 지느러미
새 살 돌아
생명수 강가에서
헤엄치게 하소서

신랑이신 예수여!
주님 맘에 흡족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내 안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달콤한 사랑의 음성
내 귓가에
늘 들리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
사랑의 꽃
피우게 하소서.



새로왔어요 37년간의 군인교회를 미감하고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12교구)

해병대 사령관 시절, 뛰어난 실력과 강직한 인품으로 동기생들이 더욱 존경했다는 이갑진 장로님 부부를 만났다. 지금도 진해의 전 소속교회의 목사님께서 하루 세 번씩 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우리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그중 한 분이 이 장로님이시며, 진해의 목사님께서 서울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다고 한다.

-37년간 군인교회를 섬기다가 전역 후 민간교회를 정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교회를 정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집 가까운 교회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편리한 곳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서울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대학강사로서 박사학위도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주일예배와 새가족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분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인교회가 민간교회와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섬기기는 마찬가지로지만 군인교회는 계급이 있는 성도로 구성돼 있고 평소 상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2년 정도 주기로 교인이 바뀌므로 민간교회처럼 한 교인을 오래 관리하는 일이 드물죠. 그러나 군이란 특수사회에서 믿음이 좋은 상관들이 부하병사들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고 어려운 일에 숭선수범 하여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생기지요. 비전2020 운동도 군대 내의 크리스찬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에서 느끼신 점은?
우선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특히 교회교육 분야에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신뢰감이 갑니다.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부족한 제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7년 장로로 장립되고 반듯한 인품의 소유자이신 장로님과 가장을 할 일 많은 우리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양동 선교사 인터뷰

<사왓디 카>

"스스로를 이름 없는 선교사라고 소개하는 이양동 목사님은 자그마한 키에 농부처럼 그을린 얼굴, 그리고 어린이가 같은 표정을 갖고 계셨다."

"사왓디 카"는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다. 올 여름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게 될 단기선교팀은 매주 평일 저녁시간을 쪼개어 태국어를 공부하고, 선교전략을 세우고 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치앙마이의 카렌족을 방문하게 된다.

카렌족은 해발 1300m에 위치한 북부 산간지방의 소수민족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이 살아오고 있다. 태국이 넓은 평야와 평균 삼모작이 가능한 비옥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북방지역은 험준한 산간지방으로 변두리에 속하며 태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황무지에 가깝다. 이곳에 사는 산족들은 대개 국적도 없는 화전민들이며, 산족 마을은 대부분 10호에서 큰 곳이면 40호 정도의 규모로 벼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주식은 밥이지만, 부식이 따로 없고 소금과 장을 반찬으로 한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이들은 그러나 손님이 오면 손님을 먼저 대접하고 남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 순박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목사가 처음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없는 곳을 수소문하여 내국인들도 마다하는 산족 마을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전도인으로 양육하여 다시 파송하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 이 목사가 개척한 예배드리는 곳이 7-8군데에 달하며 교회를 건축한 곳도 5곳이나 된다고 한다.

10년동안 치앙마이의 카렌족을 섬기면서 항상 감사한 것은 그들의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목사는 특히 높고 험한 산을 뚫고 같은 태국인들도 외면하는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선교팀의 지원이 사역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열흘간의 선교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셨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더 순수하고 오히려 배울 것이 많은 이들로부터 오히려 선교팀이 은혜를 받고 돌아올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 목사는 카렌족 마을이 한국의 60-70년대 시골 사람들의 인심과 정이 느껴지는 곳이며, 사람냄새 나는 사람들(?)을 맡겨주심을 항상 감사하신다고 하셨다.

수십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이자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서쪽으로는 미얀마 국경과 닿아있다)인 태국에서도 특히 카렌족은 정치적으로 불교도들을 지원하는 태국 정부측에 의해 지도층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 받아왔으며, 때문에 소외 받고 외로운 자들로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그리고 복음이 절실한 곳이다. 이교도와 우상이 넘치는 태국에서 영적 케릴라전을 벌일 선교팀은 35℃의 무더운 날씨와 선교 일정과 겹친 우기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충분치 않은 등 많은 제약을 장에 갖고 있지만, 낮고 천한 자를 대접하고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길을 떠날 것이기에 진정 축복 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선교팀은 이번 기간동안 선교 활동 외에도 교회를 한 곳 건축하고 돌아올 예정이며,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다.

기자는 단지 자신들을 찾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다는 산족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늘날 문명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광활한가 돌아볼 수 있었다.

또 한가지 감사한 것은, 좋은 소식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큘 쿤 캅! 프라 짜우!"(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소정 (편집부)

김치 세미나 특집 ③

가난과 에이즈로 고통받는 중앙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내륙국이며, 면적은 약 62만 2,984km²로 한반도의 약 2.8배 정도이다. 북쪽으로는 차드, 북동쪽으로는 수단, 남쪽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 서쪽으로는 카메룬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서방향의 좁고 긴 국토는 평균고도 600-1,000m의 대지이다. 국토 전체가 사바나지대로, 북부에는 수목이 거의 없고, 남쪽으로 갈수록 수목이 많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방기를 비롯하여 보알리·방바리 등이 있다. 기후는 남부-열대 우림 기후, 중부-다우성 기후, 북부-건조기후이다. 기온은 연평균 26℃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58년 프랑스 공동체 소속 자치공화국이 되어 국명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정하였다. 1960년 8월 13일 프랑스에서 독립하였다. 중앙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로, 생활수준이 낮으며,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식민 후기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는 다른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와 독재정권의 압박으로 특징지어진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는 부패와 에이즈(AIDS)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진흙벽돌로 된 오두막에 살아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모기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 공용어는 프랑스어나 각 부족의 공통언어인 상고어도 널리 상용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의 종교 토착신앙을 믿는 사람이 24%로 가장 많고, 개신교도가 25%, 로마가톨릭교도가 25%, 이슬람교도가 15%, 기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 11% 정도이다.

1960년 독립 이후 태어난 아프리카인들은 최소한 초등학교에는 진학하지만, 그 중 1/8 정도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진학하는 아이들의 1/10 정도만 졸업한다.

이러한 어려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유태서(편집부)

2001년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70인 전도대	정학창, 이공숙, 정서연, 정의현, 박운경, 윤재룡, 임여송, 이운수, 김유미, 이은정, 박진오, 김효성, 이용혜, 김정애, 오창준, 박남규, 정순단, 옥영선, 허명규, 오창준, 권오원, 이은홍, 정정한, 김진익, 김진형, 권영, 김순주, 조한석, 조영석, 김명선, 김향숙, 주학실, 남재구, 김영석, 임독빈, 정금자, 김진봉, 유병숙, 한영분, 배정미.

김치세미나에 도움주신 가정

이옥녀 권사 오정수 장로 오광환 집사 김세제 집사 김민수 집사 이남성 집사 한정아 집사 김재근 집사 청년부 사려여전도회 박순옥 권사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1일(목) 총회주제 연구위원회에 참여한다.
- 빌립보 교회 김진형 목사 다시마 5박스 기증
- 이찬호 집사 목회자 세미나 동문회 만두 기증
- 선우중성 집사, 정미화 성도 (2교구) 덕녀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최용걸 집사 최일춘 권사 (3교구)

☑ 목회자 세미나 간식 제공 가정 : 3교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청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지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